

제441호 2026년 9월 1일

소련에서 러시아로 계승된 북극전략: 북방함대와 '요새 방어(Bastion Defense)'를 통한 핵 억지력 유지

러시아 북극전략이 소련 시기부터 이어진 북방함대 중심의 '요새 방어' 개념에 기반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러시아는 콜라반도, 바렌츠해, 노르웨이해 일대에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해 전략 핵잠수함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유사시 2차 핵타격 능력을 유지하려 한다. 기후변화로 북극 자원과 북방항로의 가치가 커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핀란드·스웨덴의 NATO 가입과 연합훈련 강화로 북극의 군사적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북극 기지 현대화, 북방함대 전력 강화, 극초음속 미사일과 저위력 전술핵 운용, A2/AD 능력 확대를 통해 북극을 핵억지력의 핵심 전략 요새로 유지하려 한다.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전략지로 부상한 북극



조선대학교
교수
박종관

2007년 8월, 러시아 심해 탐사대는 북극해 해저에 티타늄으로 제작한 자국 국기를 꽂았다. 이는 북극점으로 연결되는 해저산맥(대륙붕)인 로모노소프 해령(海嶺)이 자국의 시베리아 대륙붕과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북극해 영유권과 방대한 매장량을 자랑하는 자원에 대한 선점 의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극을 둘러싼 자원과 항로 확보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었으며, 전략적 군사·안보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해졌다.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진행되면서 북극의 매장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북방항로(NSR)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북극은 단순한 환경적 공간을 넘어 치열한 지정학적 요충지로 부상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극권 국가인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NATO) 가입과 후속 행위인 나토 연합 훈련 강화, 게다가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과 점령 선포 등은 북극이 더 이상 예외주의로 설명될 수 없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오늘날 북극은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을 위한 지정학적 이해가 상충하는 핵심 전략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러시아에 북극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전략 공간이다. 러시아 북극 지역(AZRF)은 전체 영토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해안선 길이만 24,150km에 달해 북극해 전체 해안선의 약 53%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러시아 GDP의 약 20%, 전체 수출의 22%를 담당하는 경제적 중심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러시아의 국가안보 전략과 군사 교리에서는 북극해에서의 국가 이익 보호와 전략적 핵 억지력 유지를 해군의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북방함대의 구조와 역할

러시아 서부 북극 군사력의 중심인 콜라반도는 방어 및 공격 전력이 고도로 집약된 전략적 요충지이다. 러시아는 무르만스크주의 가드지예보 잠수함 기지 확장, 오킴나야 만의 무기 벙커 건설, 세베로모르스크 공군기지 현대화 등 인프라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며 북극 영토 방어력과 전력 투사 능력을 강화해 왔다.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베로모르스크에 사령부를 둔 북방함대는 북극과 대서양 해역의 안보를 담당하는 러시아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상시 핵 억지 태세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933 년 창설 이후 지속적인 조직 개편을 거쳤으며, 2020 년 독립된 군관구로 승격되었다가 2024 년 3 월 대통령령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레닌그라드 군관구 산하로 편입되었다.

북방함대의 핵심 전력은 전략핵추진탄도미사일잠수함(SSBN)(이하 전략핵잠수함)과 공격형 잠수함(SSN)으로 구성된 잠수함 부대이다. 여기에 중형 항공모함과 핵추진 미사일 순양함 등 수상함 전력, 제 14 군단 및 해병여단을 중심으로 한 연안 전력, 대잠초계기와 미사일 탑재 항공기 등 항공 전력이 결합되어 육·해·공의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북방함대는 북방항로(NSR)를 통제·보호하는 동시에 북극 전역을 아우르는 통합 방공망인 '북극 돔(Arctic Dome)' 구축을 통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잠수함 전략으로서의 '요새 방어(Bastion Defense)'

'요새 방어(Bastion Defense)' 개념은 콜라반도 인근 바렌츠해와 노르웨이해 일대에 다층 방어 지대를 구축하여 전략핵잠수함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잠수함 방어 전략이다.

이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략핵잠수함을 적의 선제공격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유사시 확실한 2 차 핵 타격(보복 공격) 능력을 보장하는 데 있다.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국방예산 축소와 전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2 년 이 개념을 공식화했으며, 제한된 핵전력을 북극해에 집중 운용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특히 수 미터 두께의 북극 빙하 아래에 전략핵잠수함을 은닉·운용함으로써 적의 탐지와 공격을 회피하는 방식을 발전시켜 왔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요새 방어 전략이 과거 소련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략적 연속성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연적 장벽인 북극의 빙상을 천연 방어막으로 활용하고, 콜라반도의 군사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전한 작전 구역을 확보한다는 기본 개념은 오늘날에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상전에서의 손실과 군사 개혁의 한계로 인해 러시아의 군사 교리상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미·러 간 군축 조약으로 전체 핵무기 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상 발사 미사일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생존성이 뛰어난 전략핵잠수함이 러시아의 핵심 억지 수단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북방함대 전력이 저위력 전술 핵무기를 탑재하고 해상 배치를 재개한 점 역시 이러한 요새 방어 전략의 현대적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맺음말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해 해빙과 첨단 무기 기술의 발전은 러시아 해군의 작전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북극에 대한 러시아 해군 북방함대의 '요새 방어' 개념은 여전히 러시아의 북극해 전시 해군 전략을 설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효한 전략적 틀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 등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북극의 전략적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북극은 러시아에게 단순한 안보적 완충지대를 넘어 국가 핵 억지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전략 거점으로서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는 소련 시기부터 축적해 온 전략적 유산을 바탕으로 북극 기지의 현대화와 재건을 지속하는 한편,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 강화와 저위력 전술핵무기의 해상 운용 확대 등을 통해 북극해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서양 방면으로부터의 접근을 차단하는 접근거부·지역거부(A2/AD) 능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극해를 자국 핵 억지력의 핵심 '전략적 요새'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1] '크냐즈 포자르스키' 전략핵잠수함



자료: <https://theins.ru/news/283723>(검색일:2026.07.27.)

자료 설명: '크냐즈 포자르스키'는 제 4 세대 러시아 전략핵잠수함이다. 보레이급(프로젝트 955)의 8 번째 함선이자, 개량형인 보레이-A 급(프로젝트 955A)으로 건조된 5 번째 함선이다. 현재 북방함대 31 잠수함사단에 편제돼 무르만스크주의 가드지예보 해군 기지에 배치돼 있다.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력

박종관 교수는 러시아 지역학 전문가로서 동시에 북극에 대한 정치, 군사, 안보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모스크바국립대학교(MSU) 정치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국립 사범대학교 역사학부 정치학과 부교수로 3년간 재직했다. 현재 조선대학교 유럽언어문화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내외 추천자료

- [Overell, Emmerson, and Katy Wickberg. "Russia Is Expanding Its Arctic Submarine Fleet, Highlighting NATO's Need for Enhanced Maritime Surveillance in the High North."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August 4, 2026.](#)
- [Kvaratskhelia, Mariam. "How Russia's Undersea Nuclear Buildup Is Reshaping the Arctic." *New America*, July 31, 2026.](#)
- [Stewart, Ruben. "NATO's three-front problem." *ISS*, July 6, 2026.](#)

알림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 KIMS Periscope는 매월 1일, 11일, 21일에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KIMS Periscope는 안보, 외교 및 해양 분야의 현안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합니다.
- KIMS Periscope는 기획 원고로 발행되어 자유기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웹페이지보기](#)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